

# 자리 못찾은 이강인 - 주전 확보한 이승우



이강인

발렌시아 팀내 4번째 카드  
리그 2라운드까지 벤치 신세  
이적 시한 마저 압박

한국 축구의 기대주 이강인이 리그에서 두 경기 연속 출전하지 못했다. 주전 경쟁이 순탄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코리안 메시' 이승우는 이탈리아를 떠나 벨기에 신트 트라위던으로 옮겨 주전을 꿰찰 것으로 보인다. 축구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두 선수의 시즌 초반 행보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강인(발렌시아)은 1군 출전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U20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준우승을 견인하고 골든볼까지 거머쥐면서 소속팀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는 예측을 빚어가고 있다.

이강인은 리그 2라운드까지 벤치에 앉았다. 리그 개막전에서는 아예 출전 명단에 들지 못했다.

2라운드에서 포지션 경쟁 상대인 카를로스 솔레르가 훈련 도중 부상을 당해 교체 출전이 기대됐다. 하지만 마르셀리노 감독은 이강인을 교체카드로 쓰지 않았다.

결국, 벤치에서 팀의 1-0 패배를 지켜봐야 했다.

팀에서 오른쪽 미드필더로 분류된 이강인은 현재 솔레르, 제이손, 페란 토레스에 이은 4순위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감독이 쓰는 네 번째 카드라는 얘기다.

지난 시즌 내내 경쟁력이 높았던 마르셀리노 감독은 올 시즌 가까스로 팀 잔류에 성공했다.

이번 시즌 뭔가 보여줘야 하는 마르셀리노 감독이 팀내 4순위인 이강인의 기용은 사실상 모험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를 선호하지만 마르셀리노 감독이 구사하는 4-4-2 전술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가 없다.

이강인이 중앙에서 뛰기에는 체력과 수비력,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현재의 일반적인

이승우

이탈리아 떠나 벨기에로 이적  
신트 트라위던, 주전 보장 예고  
실력 발휘 '기회의 장'

평가다. 이강인에게 시간마저도 촉박하다. 프리메라리그 이적 마감기간(다음달 3일)이 얼마 남지 않아 사실상 주전자리를 얻기 위한 임대나 이적은 힘들어 보인다.

이강인과 달리 이탈리아 세리에A 엘라스 베로나에서 뛰는 이승우(21)는 보급자리를 옮겨 주전자리를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베로나 지역지인 TG 지알로블루는 28일(한국시간) "이승우가 벨기에 주필러리의 신트 트라위던으로 완전히 이적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트 트라위던은 일본 기업 DMM이 경영권을 보유한 벨기에 클럽으로 최근 일본과 베트남 등 아시아 선수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인천 유나이티드 출신의 '베트남 메시' 콩푸영도 뛰고 있다.

신트 트라위던은 이승우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기간은 옵션 포함 3년 연봉은 80만 유로(약 10억 8000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신트 트라위던은 현재 1승 1무 3패(승점 4)로 16개 팀 중 12위를 달리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던 이승우에게 신트 트라위던은 기회의 장이 될 전망이다. 베로나는 이번 시즌 이승우에게 주전 공격수를 상징하는 등번호 9번을 배번하고도 출장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탈리아 리그보다 한 수 아래인 신트 트라위던에서는 주전자리를 보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FC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 이승우는 지난 2017년 베로나로 옮겨온 후 올 시즌을 앞두고 신트 트라위던 이적설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이민우, KIA 마운드에 희망 던졌다



삼성전 6이닝 5피안타 2실점 호투  
볼넷·송구 실책 후 위기관리 능력 보여  
제구 난조·스피드 억제...꾸준함 관건

이민우가 KIA타이거즈 2020시즌 구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5강 싸움에서 떨어진 KIA는 남은 시즌에서 7위라는 자존심을 지키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밑그림도 그려야 한다.

선발진 구상은 내년 시즌 성적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4-5선발 고민을 이어오고 있는 KIA는 지난 27일 이민우를 선발로 내세워 미래 구상을 시작했다.

이민우는 27일 경기 전까지 올 시즌 27경기에 등판했고, 선발로는 지난 6월 16일 롯데전이 유일했다.

이민우는 앞선 27경기에서 평균자책점 4.95, 1승 3패 1세이브 2홀드를 기록했다. '젊은 마운드'의 성장세에 비하면 이민우

의 역할은 부족했다. 3차례 엔트리에서 말소되기도 했던 이민우는 KIA의 선발 고민 속에 가장 잘 맞는 선발로 다시 한번 어필 무대를 가졌다.

두 번째 선발 등판은 성공적이었다.

이민우는 삼성을 상대로 6이닝 5피안타 3사구 1탈삼진 2실점을 기록하며 선발 임무를 완수했다. 경기는 불펜진의 난조로 1-10 대패로 끝났지만 이민우의 모습은 KIA에 위안이 됐다. 우여곡절 끝에 만든 퀄리티 스타트라서 더 의미 있다.

이민우는 "몸 풀 때 안 좋았는데 마운드 올라가서 던지는데 좋았다. 하지만 비로 경기 지연되고 갑자기 경기가 시작되면서 초반에 몸이 굳었다. 중간에는 심판이

다쳐서 경기가 중단되는 등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4회부터 많이 좋아졌다. 잘 던져서 시즌 끝날 때까지 (선발)로테이션을 돌자는 각오였는데 퀄리티를 해서 좋다"고 언급했다.

또 "최고 구속이 147km는 나왔는데 전체적인 스피드는 좋지 못했다. 스피드에 비해 볼 끝이 좋았다. 힘 빼고 가볍게 던졌는데 볼끝이 좋아서 밀리는 모습이었다. 그 부분이 좋았다"고 덧붙였다.

이민우는 3회 선두타자 볼넷 이후 송구 실책으로 위기를 자초했지만, 실점을 최소화하며 제 몫을 했다. 하지만 자세가 틀어지면 선발 자리를 얻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민우는 "삼성 타자들이 빨리 쳐졌다. 운이 좋았다. 기록을 보면 투 스트라이크는 빨리 잡았다. 거기서 결정 못하고 볼넷을 주거나 빨리 들어가다가 안타를 맞았다. 결정구가 아쉽다"며 "카운트 잡는 커브나 슬라이더, 확실히 딸굴 수 있는 포크볼 등이 필요하다. 던질 수 있는 구종은 많은

데 확실하게 던질 수 있는 구종이 두 개는 더 있어야 한다"고 돌아봤다.

갑작스러운 제구 난조도 속제다.

이민우는 "갑자기 공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다. 스피드도 안 나온다. 공을 때려야 하는데 한 번씩 그런 상황이 오면 불뉘를 내준다. 많이 던지면서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올 시즌 KIA는 선발진의 '극과 극'의 피칭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계산이 서는 확실한 선발은 에이스 양현종이 유일하다시피 하다.

이민우가 선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또 KIA의 선발진 안정화를 위해 '꾸준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등판이 이민우와 KIA에게 더 중요하다.

이민우는 "연속성이 가장 문제인 것 같다. 좋은 경기가 오래 안 간다"며 "끝까지 선발로 도는 게 목표다. 다음 등판 준비 잘 해서 안정된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연승' 전남드래곤즈, 베스트 11에 4명

K리그2 25R 정재희·김건웅·곽광선·최준기 올라



정재희

곽광선

김건웅

최준기

시즌 첫 연승에 성공한 전남드래곤즈가 '베스트 11' 네 자리를 차지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2019 K리그2 25라운드 10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부천FC와의 원정경기에서 3-0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첫 연승을 기록한 전남에서는 4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공격수 정재희가 부천을 상대로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MVP의 영예를 안았다.

팀의 무실점 승리에 기여한 김건웅(MF), 곽광선·최준기(DF)도 베스트 11에 포함됐다.

한편 전남과 부천의 경기는 25라운드 베스트 매치로 선정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BO, 신인 지명권 트레이드 도입

KBO리그에 신인 지명권 트레이드가 도입된다. KBO는 27-28일 1박 2일간 사장단 워크숍을 열고 규약 개정안 및 KBO 리그 경기력 향상과 팬서비스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명권을 트레이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사회는 트레이드 활성화를 위해서 지명권(2장 이내)을 트레이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각 구단은 신인 지명권을 다른 구단에 넘기고 기존에 있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대신 신인 지명권을 받은 구단은 해당 신인을

1년간 다른 팀으로 보낼 수 없다.

눈길을 끄는 도핑 제재 규정은 강화한다. 선수단 체력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혹서기에 시작되는 2연전 시기는 앞당긴다.

1군 엔트리 등록 인원 확대안과 포스트 시즌 경기 방식 변경안 그리고 스피드업 을 위한 비디오판독 시간을 3분으로 축소 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퓨처스리그 경기수 확대, KBO 교육리그도 추진된다. 이사회는 독립리그, 대학 리그, 프로 3군 리그를 통합한 리그 창설로 아마야구 저변 확대를 꾀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덕아웃 T 특특

## 도루 잘 안 내주는 임기준 "그냥 던지는데"

▲그냥 던지는데 = 타자들에게는 가장 까다로운 투수 임기준이다. 좌완 임기준은 독특한 투구폼으로 눈길을 끄는 선수 중 하나다.

하지만 임기준을 가장 까다로운 투수로 만드는 것은 견제 동작이다. 투수의 타이밍을 뺏으면서 올 시즌 도루 1위를 달리고 있는 박찬호도 인정하는 임기준의 견제 실

력. 박찬호는 "좌완 특히 좌우찬 선배일 때 도루하는 게 가장 어렵다. 기준이 형을 상대한다면 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임기준은 "같은 폼에서 견제해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던진다. 견제가 좋은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웃었다.

▲미안해 밥 살게 = 지난 27일 삼성전 선발로 나선 이민우는 6이닝 2실점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다.

시작은 좋지 못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볼넷을 내준 뒤 몸에 맞는 볼까지 허용했다. 경기 개시를 앞두고 비로 경기가 지연되면서 리듬이 깨졌던 이민우는 몸이 굳으면서 제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민우의 공에 맞은 선수는 최현호 직속 후배인 유격수 박계범이었다.

이민우는 "직구 몸쪽을 보고 던졌는데 몸이 말을 안 들었다. 나도 던지고 놀랐다. 경기 중에 사과했다"며 "미안하다. 나중에 계범이에게 밥을 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계범은 희생플라이와 적시타로 3타점을 올리며 삼성 10-1 승리의 주역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